

Come to HUFS Meet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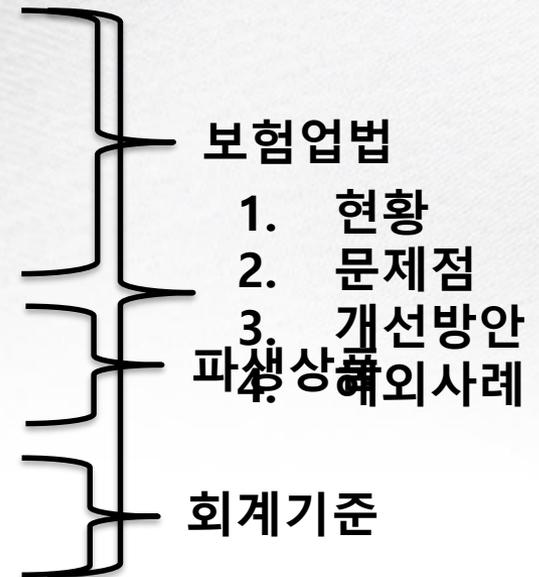
#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외국어 대학교  
송인정 교수



# 목차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삭제
  2.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징 손익을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제외
  3.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를 위한 RP 매도 (자금차입)를 허용
  4. 미결제약정 한도규제 제외거래의 신고 간소화
  5. 장기국채선물 상장 (신상품 개발)
  6.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상품의 헤지효과 100% 인정
  7. 금리변동 위험의 헤징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4. 결론
5. 참조



# 서론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새로운 규제기준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자본기준(ICS), K-ICS) 의 적용
- 보험사 자산, 부채의 시가평가와 함께 현행 RBC 비율보다 규제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사들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처한 금리차 역마진 상황과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옵션, 장기 종신보험 등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수적임
- 국내보험사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파생상품 이용 헤지가 매우 낮은 수준.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으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SAP (Statutory Accounting Principal), Schedule DB
- Purposes (1) hedging (2) income generation (3) replication (4) investment
- Insurance companies are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regarding the permitted use of derivatives
- On Schedule DB, "hedging effective" or "hedging other"
- Derivatives used in effective hedges are valued and reported in "hedge accounting"
- It requires prior approval of derivatives use plan (DUP) and written guidelines
- Derivatives are seen as an efficient tool for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ALM)
- Can be considered as a substitute of Reinsurance

# 미국 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The notional value (i.e. total value of options, forwards, futures and foreign exchange currencies) of insurance industry derivatives tops \$2.3 trillion.
- The top 10 users of derivatives account for 66% total industry notional value
- Life insurers accounts for 95% of total notional value compared to 5% of P/C
- 49% of total notional value to swaps, 44% options, 3% futures, 3% forwards
- Swaps to manage interest rate, credit, duration and currency risks, while options are preferred to manage equity/index risk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1.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삭제

### 1. 현황

1.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의 한도 규제를 받음
2. 자산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파생 상품거래가 가능 (보험업법§106①제10호)

계정구분	장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반계정 (한도금액)	총자산의 6% 미만 (위탁증거금 기준)	총자산의 3% 미만 (약정금액 기준)
특별계정 (한도금액)	계정자산의 6% 미만 (위탁증거금 기준)	계정자산의 3% 미만 (약정금액 기준)

3. 예외 5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① 일반 헤지거래, ② 외화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 외화채권 투자, ③ 파생결합증권 투자, ④ 만기보유 국고채 연계 IRS, ⑤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1.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삭제

### 2. 문제점

1. 보험사의 원활한 파생상품거래가 어려운 상황
2. 헤지거래는 물론 수익률 제고를 위한 무위험 차익거래,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의 기회 상실이 우려됨
3. 장외파생상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정금액으로 한도금액이 산출되어 규제한도가 빨리 소진 될 수 있음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를 5개 유형\*으로 특정하여 모든 헤지거래를 자산한도 규제에서 제외하지는 못함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① 일반 헤지거래, ② 외화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 외화채권 투자, ③ 파생결합증권 투자, ④ 만기보유 국고채 연계 IRS, ⑤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1.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삭제

### 3. 개선방안

1. 보험사의 원활한 파생상품거래 및 위험관리 수행을 위해 파생상품거래 한도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9. (생략)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 ----- ----- ----- ----- ----- ----- ----- ----- 1.~9. (현행과 같음)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총자산의 100분의 3미만)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미만)	10. <삭제>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1.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삭제

### 4. 해외사례

1. 사후규제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EU, 호주 같은 간접 규제로의 전환 예정

구분	한도규제		주요 규제 내용
	직접	간접	
EU* (영국, 독일 등)	X	O	□AAA~AA등급 익스포져가 자산의 3%를 초과하거나, BB이하 등급 익스포져가 자산의 1.5%를 초과하면 추가적 집중리스크를 RBC비율 등에 반영
호주	X	O	□신용등급이 낮은 익스포져가 가용자본 대비 25% 초과시 추가적인 집중리스크 요구자본을 부과(RBC에 반영)
한국	O	X	□외국환, 부동산, 파생 등에 대해 직접한도 규제 중
일본	O	X	□('12년) 부동산, 외국환 등 개별 자산에 대한 직접한도 폐지
미국	O	X	□국내주식(보통주, 신탁증서 등 지분증권): 인정자산의 20% □국내용 투자부동산: 인정자산의 25% □국내 영업용 부동산: 인정자산의 10%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2.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징 손익을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제외

### 1. 현황

1. 보험업의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비변액보험인 금리연동형보험 (일반계정)의 공시이율 산출에 반영됨  
(경로) 파생거래 손익 → 투자손익 → 운용자산수익률 → 운용자산이익률 → 공시기준이율 → 공시이율

① 공시이율 = 공시기준이율 × 조정률

②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a + 운용자산이익률 × (1-a)

\* 국고채(5년), 무보증 회사채(3년, AA-), 통안채(1년), CD(91일) 유통수익률

③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운용자산수익률)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기준으로 산출**

- (투자지출률) 직전 1년간의 투자활동의 직접 소요 비용을 반영

※ [관련조문] 보험업감독규정 §6-12③,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16③ 및 별표27

2. 특별계정의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파생상품을 통해 헤징하는 경우 파생상품거래 손익으로서 일반계정의 비변액보험의 공시이율에 영향을 미침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2.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징 손익을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제외

### 2. 문제점

1.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지거래 손익은 공시이율 산출에 반영되나, 변액보험의 보증 관련 손익은 반영되지 않음
2. 1의 두 손익은 서로 상계되어야하나 헤지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비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손실 전가
3. 반면, 헤지거래 이익은 보증준비금을 통해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비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2.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징 손익을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제외

### 3. 개선방안

1.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지거래 손익을 공시기준이율 산출과정에서 제외

현 행	개정안
<p>[별표27]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 (제5-16조 관련)</p> <p>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별표27]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 (제5-16조 관련)</p> <p>1. 공시기준이율 산출 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다.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할 때에는 감독규정 별표9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마. (1)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평가 및 거래손익을 제외한다.</p>
<p>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 다. (현행과 같음)</p>
<p>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 바. (현행과 같음)</p>	<p>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 바. (현행과 같음)</p>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3.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를 위한 RP 매도 (자금차입)를 허용

### 1. 현황

1.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환매조건부채권 (RP) 매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이 가능
2. 최근 몇년간 금리하락 등으로 변액보험의 보증준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증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거래 허용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3.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를 위한 RP 매도 (자금차입)를 허용

### 2. 문제점

1.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지거래 후 해당 포지션 유지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납부할 일일정산 자금이 필요하나, 정산 자금 조달목적의 RP 매도가 가능한지 불명확
2. 헤지거래 후 의도하지 않은 시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일정산에 따라 자금 유동성 수요가 발생 (손실 발생시 자금 필요)
3. 이외 타 금융회사는 헤지거래 시 일일정산을 위한 차입 수단이 다양하나, 보험사는 현금에 한정
4. 일일정산을 위해 단기자금을 필요 이상 보유하면 비변액보험 계약자에게 불이익  
유동자금의 보유 -> 장기·고수익 자산 투자 불가 ->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 공시이익률 하락 -> 일반계정 계약자의 수익 하락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3.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를 위한 RP 매도 (자금차입)를 허용

### 3. 개선방안

1.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유동성 유지에 단기자금 차입 수단으로 RP 매도를 허용

현 행	개정안
제7-9조(차입) 영 제58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생략)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 9. (생략)	제7-9조(차입) ①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lt; 신 설 &gt;</u>	② 보험회사가 별표9 “4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마.(1)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차입하는 것은 제1항 본문 중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본다.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4. 미결제약정 한도규제 제외거래의 신고 간소화

### 1. 현황

1. 거래소는 특정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별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설정하나, 헤지거래 및 차익거래는 보유한도에서 제외

기초자산	품목	보유 한도	한도초과 판단기준
코스피200	선물·미니선물/ 옵션·미니옵션	2만계약	장종료 시점 미결제약정수량, 전일·당일의 델타
코스닥150	선물·옵션	2만계약	
KRX 300	선물	2만계약	순미결제 약정수량

2. 미결제약정수량 산출시 헤지거래·차익거래 관련수량을 제외하며, 투자자는 증빙서류를 증권사를 통해 거래소에 신고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4. 미결제약정 한도규제 제외거래의 신고 간소화

### 1. 현황

#### 2. 미결제약정수량 산출방법\*

예) 코스피 200 상품

선물,미니선물별 순미결제약정수량 + 옵션,미니옵션별 델타환산수량  
의 순미결제약정수량

3. 헤지거래·차익거래 관련수량을 제외하며, 투자자는 증빙서류를 증권사를  
통해 거래소에 신고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4. 미결제약정 한도규제 제외거래의 신고 간소화

### 2. 문제점

1. 보유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의 포지션이 헤지거래인 경우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에서 제외되기 위해 매일 증빙해야 함
2. 차익·헤지거래용 미결제약정수량 보유신고서

회원명	계좌번호	한도초과일	기초자산	위탁/자기			
선물/옵션 미결제약정		연계거래 상품 보유내역					
구분	종목	포지션별 타		상품군	포지션별 타		
		전일델타기준	당일델타기준		전일델타기준	당일델타기준	
전체	선물						
	옵션						
	소계						
차익거래	선물			선물			
				옵션			
	옵션			주식집단	-		
				ETF	-		
소계			ETN				
			ELW	-			
헤지거래	선물			선물			
				옵션			
				주식집단	-		
				ETF	-		
	옵션				ETN		
					ELW	-	
					ELS	-	
					ELD	-	
소계				변액보험	-		
				기타	-		
차익·헤지 거래 합계	-			합계			
특이사항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4. 미결제약정 한도규제 제외거래의 신고 간소화

### 3. 개선방안

1.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거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유한도에서 제외되는 헤지거래 등의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 필요
2. (예) 헤지·차익거래 계좌를 사전 신고(사후 등록)하여 한도규제에서 예외 거래임을 증빙하는 방법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5. 장기국채선물 상장 (신상품 개발)

### 1. 현황

1. 보험사는 RBC 제도 개선 및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20년물 이상의 장기채 수요가 증가하였고, 초과수요로 국채 10년물 및 30년물간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남
2.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장기채 보유와 시장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국채선물 매수(헤징)가 필요한 상황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5. 장기국채선물 상장 (신상품 개발)

### 2. 문제점

1. 보험사는 장기의 부채 듀레이션을 갖지만, 국채선물은 3/5/10 년 중,단기 물만 상장되어 보험사 수요를 충족하기엔 미흡
2. 장기 듀레이션을 중·단기 국채선물로 헤지할 경우 장·단기 금리커브의 움직임에 따라 헤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5. 장기국채선물 상장 (신상품 개발)

### 3. 개선방안

1. 보험사의 장기의 듀레이션을 헤징하기 위해 만기 20년 또는 30년의 국채 선물 (롤오버 주기 1년) 의 상장이 필요
2. 보험사의 거래상대방 (선물매도 포지션)이 적을 경우 그 효자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여 시장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

### 4. 해외사례

1. 미국의 경우 30년 국채선물이 상장됨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6.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상품의 헤지효과 100% 인정

### 1. 현황

1. IFRS17과 함께 시행예정인 K-ICS 초안은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거래 효과를 보험사의 리스크 측정시 반영되도록 준비 중
2. 헤징수단의 잔존만기가 1년이상인 경우 헤징효과를 100% 인정하나, 1년 미만일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미체결 가능성을 이유로 헤징효과의 일부만 인정

< 롤-오버 주기가 3개월인 경우 헤징효과 인정비율 >

갱신계약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 잔존만기 + 갱신이행  
= 잔존만기비율 + (1-잔존만기비율)\*80%  
예) 만기 3개월의 잔존만기비율 25% → 인정비율 85%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6.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상품의 헤지효과 100% 인정

### 2. 문제점

1. K-ICS에 따르면 장내파생상품을 통해 헤징하면 3개월마다 롤-오버가 이루어져 헤징효과를 100% 인정받을 수 없음
2. 통상 장내파생상품은 근월물에 유동성이 풍부하여 3개월 단위로 롤-오버가 이루어짐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6.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상품의 헤지효과 100% 인정

### 3. 개선방안

1. 장내파생상품이 유동성이 풍부하여 미체결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헤징수단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 이더라도 헤징효과를 100%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7. 금리변동 위험의 헤징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 1. 현황

1. IFRS17 이 시행되면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변동성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본변동성을 상쇄할 현물투자에는 한계가 있어 파생상품 활용이 필요
2.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자본) 으로 인식할지를 선택할수 있으나, 대부분 자본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가 적용되어야 함

#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7. 금리변동 위험의 헤징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 2. 문제점

1. 현재 K-IFRS 에서는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 헤징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가 적용이 어려움

적용요건		주요 내용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적격성, 위험회피수단의 적격성
위험회피 효과 <sup>1)</sup> 요건	경제적 관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
	신용위험의 효과	신용위험의 효과가 경제적 관계에 따른 가치 변동을 지배적이지 않음 * 경제적 관계가 있어도 상계 정도가 일정하지 않음
	위험회피비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이 같음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회피관계</li> <li>- 위험관리의 목적 및 전략</li> <li>-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의 특성</li> <li>-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효과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평가방법 (위험회피 비효과<sup>2)</sup>에 대한 원인분석, 위험회피비율의 결정 방법 포함)</li> </ul>

2. IFRS17은 헤지거래 손익(당기손익)과 금리변동위험(자본)의 회계불일치를 해소하려면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함.
3. 이를 상쇄할 정도만큼 충분한 파생상품이 없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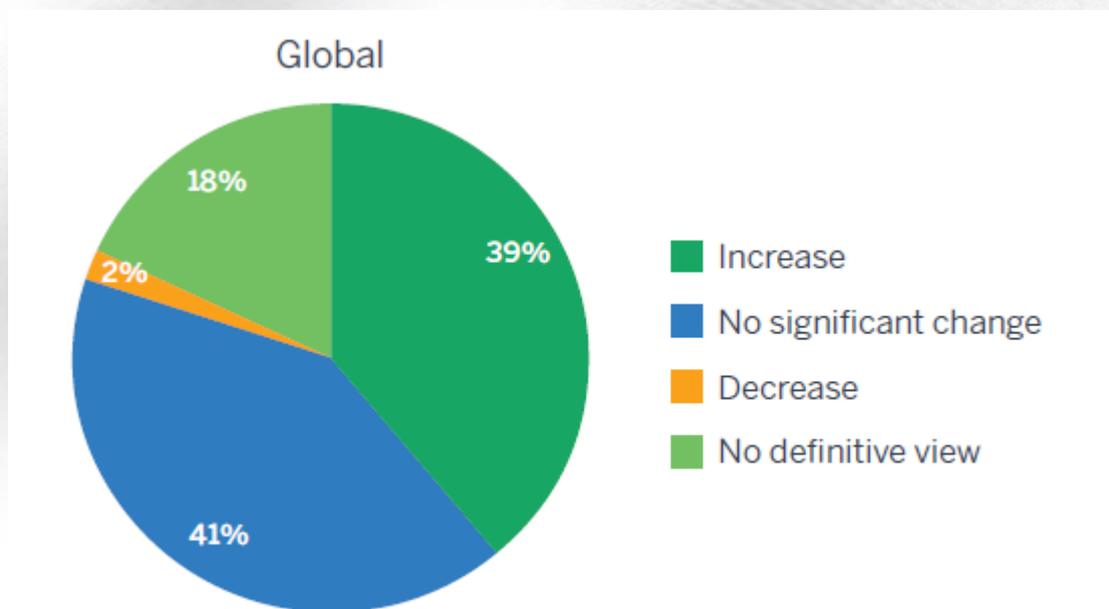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금융의 고난도 기술인 파생금융상품은 앞으로 보험회사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을 위한 주요 요소 될 것
- 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 활용은 헤지수단으로서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수익창출의 양면을 관리해야하는 보험회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
- Thus, 보험사의 원활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7가지를 제안함
  1. 파생상품거래 한도 규제 삭제
  2. 변액보험 보증위험의 헤징 손익을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제외
  3.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를 위한 RP 매도 (자금차입)를 허용
  4. 금리변동 위험의 헤징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적용
  5. 유동성이 풍부한 파생상품의 헤지효과 100% 인정
  6. 미결제약정 한도규제 제외거래의 신고 간소화
  7. 장기국채선물 상장 (신상품 개발)

# 결론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Global views on the impact of overall general usage of derivatives for hedging is POSITIVE!!! 😊



Source: 2017 Milliman's survey of derivative usage by the largest 50 insurance companies based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 참조

1. 서론
2. 미국보험사의 파생상품 이용
3. 한국보험사의 제도개선 제안
4. 결론
5. **참조**

- NAIC report , A.M. Best report (2018)
- Smith and Stulz (1985)
- Cummins and Weiss (1991)
- Colquitt and Hoyt (1995)
- Cummins, Phillips, and Smith (1997)
-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을 결정하는 요인 분석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1999)
- Guay and Kothari (2003)
- Embedded Derivatives and Derivative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009)
- Zou (2010)
- IFRS® Standards Effects Analysis (2017)
-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 해설서 (2007)
- Milliman's global derivative survey (2017)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보험사 대응전략 (2018)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감사합니다 😊

한국외국어 대학교  
송인정 교수

